



KOSPI, 중요한 저항권 도달

1. KOSPI, 반등 과정에서 구름대 저항 근접

- KOSPI, 3,200pt 수준의 저항대 도달. 이 가격대는 7월 중 횡보 국면의 바닥권으로 강한 저항 예상
-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3,250pt 수준까지 저항대 지속. 특히 3,226pt부터는 일목균형표 구름대 저항 존재. 장기 상승 후 구름대 이탈한 상황이라 구름대 저항 확인 시 조정 폭 확대 가능
- 지난 2018년 초에도 구름대 이탈 후 저항으로 확인되면서 조정 폭 확대. 중장기 고점에서 이런 모습 자주 나타남

2. 외국인 순매수 지속 확인 필요

-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5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지속 기대감 형성. 그러나 9월 중 4거래일 연손 외국인 순매수 했지만 상승 폭 0.13% 그침
- 지난 7월초 이후 외국인 순매수 패턴 볼 때, 3,200~ 3,250pt 수준에서 주로 매도세 형성해 상승 시 매도 가능성 우위
- 시장 방향성에 보다 민감한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는 1만계약 수준에서 정체되어 강한 상승을 예상하지 않는 모습

3.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가능 폭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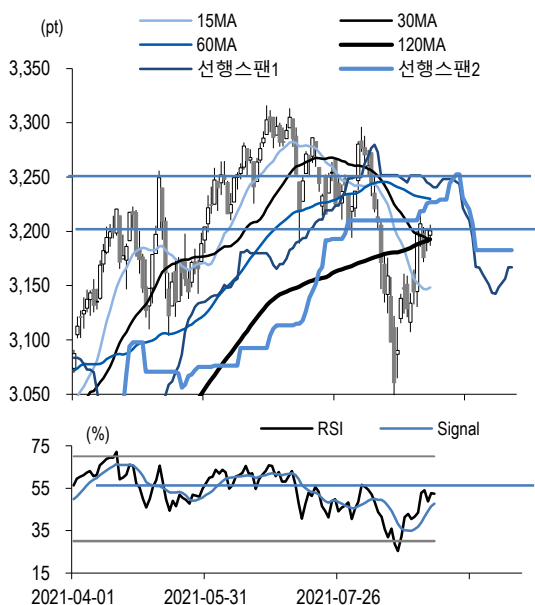
- 달러화 지수, 단기 하락세 진행 중인 가운데 7월 저점대와 120일 이평선 도달해 반등 가능한 모습
- 원달러 환율, 단기 하락 과정에서 7월 고점대에서 지지 시도 중. 추가 하락 하더라도 60일 이평선 등 지지대 존재해 조정 가능 폭 제한적

1. KOSPI, 반등 과정에서 구름대 저항 근접

전일 KOSPI는 외국인 순매수의 영향으로 소폭(+0.07%) 상승 마감되었지만 사실상 지난 8월 31일 급등 후 횡보 국면이 진행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들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8월말 대비 9월 중 상승률은 0.13%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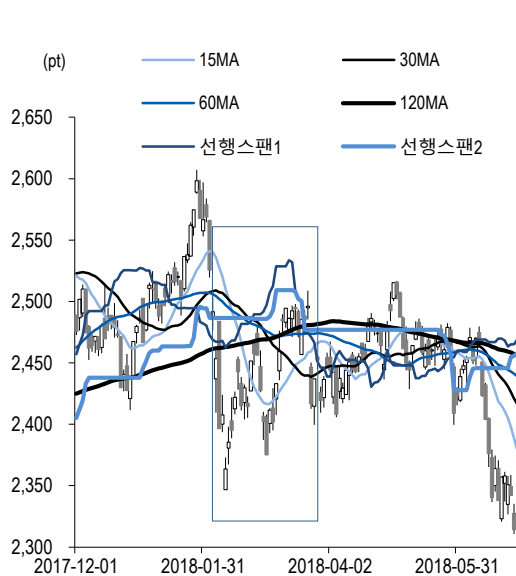
KOSPI가 이렇게 제한된 상승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3,200pt 수준의 저항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 3,200~3,210pt 부근에서 바닥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반등 과정에서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대에 도달한 상황이다. 아직은 8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과 단기 이평선 등을 상회하고 있어서 상승세 이어질 수 있지만 3,250pt까지 저항대가 계속되고 있어 돌파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3,226pt 부터는 일목균형표상으로 구름대 저항이 존재한다. 작년 4월에 구름대 저항을 돌파한 후 올해 8월에 이탈해 장기 상승 추세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반등 과정에서 구름대가 저항으로 확인되면 다시 조정 폭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초에도 구름대와 120일 이평선 이탈 후 반등 시도 과정에서 구름대가 저항이 되면서 조정 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대부분의 중장기 고점대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반등 과정에서 3,250pt까지의 저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차트1] KOSPI 일봉과 일목균형표 구름대, 3,200pt 수준 저항 도달, 추가 상승 시 3,250pt 수준까지 구름대 저항 존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일봉과 일목균형표 구름대(17.12~18.6), 구름대와 120일 이평선 저항으로 확인되면서 하락 반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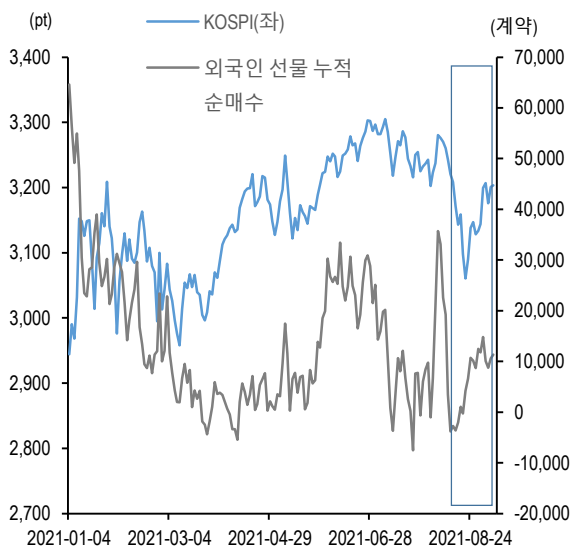
2. 외국인 순매수 지속 확인 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양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27.2조원이고, 7월초 이후 순매도 금액은 약 10조원이다. 최근 5일 간 순매수 금액은 약 2.4조원이지만 9월 들어 기록한 1.27조원 순매수 규모에 비하면 KOSPI 상승률은 0.13%로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이미 3,200pt를 넘긴 상황에서 가장 부담스런 사실은 7월 초 이후 외국인 순매도가 분포한 대부분의 가격대는 3,200 ~ 3,250pt 수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차트4]는 7월 초 이후로 KOSPI 증가 기준 10pt 단위로 지수대별 외국인 순매도 금액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사각형 박스로 표시한 부분인 3,200 ~ 3,250pt 수준으로 지난 7, 8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었던 가격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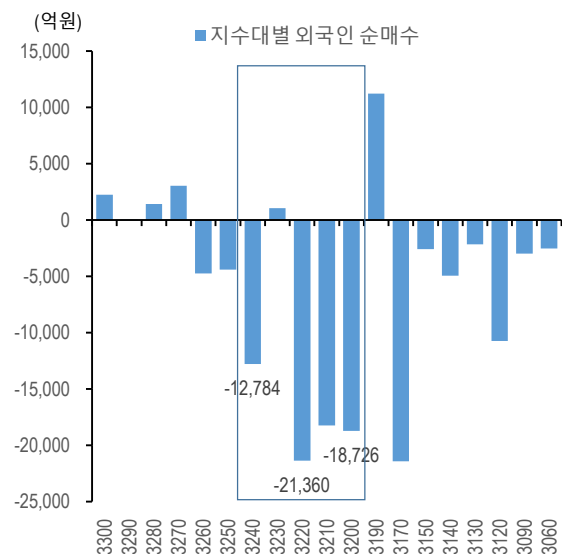
한편 [차트3]은 KOSPI200관련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미니선물과 스프레드거래 포함)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의 방향성에 보다 민감한 것이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다. 최근 반등 과정에서도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는 1만계약 수준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매수세를 형성하지 않고 있어 강한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차트3] KOSPI와 KOSPI200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외국인 선물 순매수는 아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7월 1일부터 전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가격대 분포, 주로 3,200 ~ 3,250pt 사이에서 매도 규모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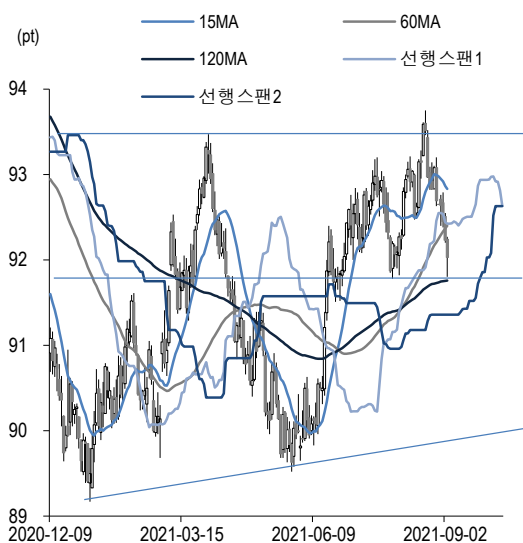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가능 폭 제한적

최근 유로존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국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지수가 8월 19일 93.59pt에서 전주말 92.03pt까지 1.66% 하락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93.5pt 수준의 3월 말 고점대 부근의 저항 돌파에 실패한 후에 하락했고, 전주말 장 중 저점(91.80pt)은 7월 말 저점대의 지지대가 존재하는 가격대라 할 수 있다. 또한 120일 이평선의 지지가 91.70pt에 위치한 단기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이미 연초 이후 등락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이 상승 전환되는 등 장기 상승 추세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라 하락 가능 폭은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원달러 환율 역시 1,180원 수준에 위치한 작년 9월 저점대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중인 가운데 7월 고점대 수준에서 낙폭이 제한되고 있다.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트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추가 하락 시 60일 이평선과 일목균형표상 구름대의 지지대까지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하락세 이어질 수 있지만 추가하락 가능 폭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모두 바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트5] 달러 인덱스 일봉, 조정 과정에서 7월 말, 120일 이평선 등의 지지대 도달. 추가 하락해도 낙폭 제한적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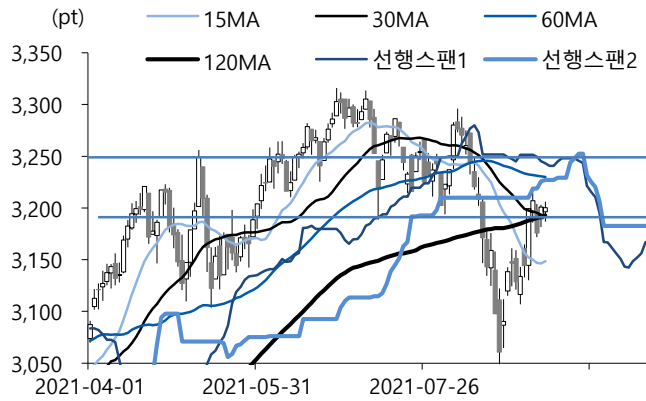
[차트6] 원달러 환율 일봉, 단기 하락 중 7월 고점대 지지 시도 중. 추가 하락 시 60일 이평선 지지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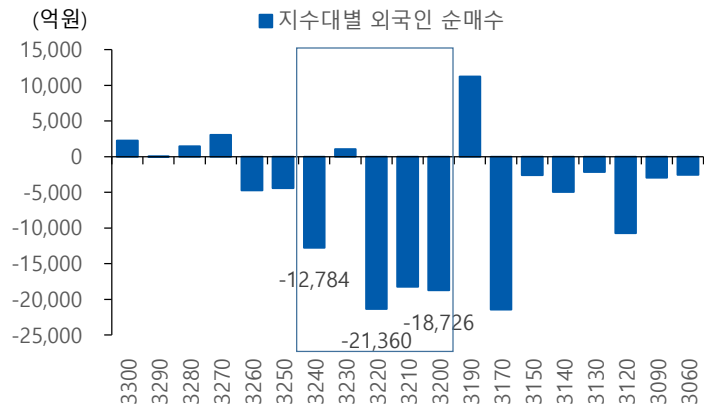
Key Chart

KOSPI 일봉과 일목균형표 구름 대, 3,200pt 수준 저항 도달, 추가 상승 시 3,250pt 수준까지 구름 대 저항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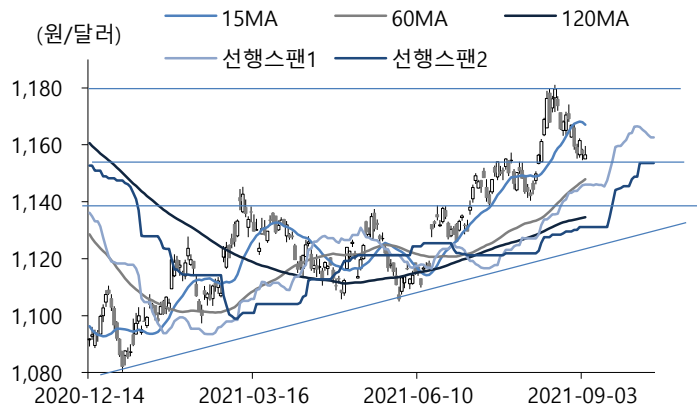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월 1일부터 전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가격대 분포, 주로 3,200 ~ 3,250pt 사이에서 매도 규모 크게 나타났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 환율 일봉, 단기 하락 중 7월 고점대 지지 시도 중. 추가 하락 시 60일 이평선 지지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